

“전국체전 성공 개최 총력 … 전남체육 저력 되찾겠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당선인

송진호(59) 제38대 전남도체육회장 당선인이 내년 2월 16일부터 전남도체육회를 이끈다.
 내년으로 민선 2기를 맞는 전남체육회는 104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비롯해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그만큼 전남 시민과 체육인들이 송 회장에 기대는 기대는 크다.
 송 회장은 2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남 체육인들과 미래 100년 새역사를 써 나가겠다”며 “전국 체전 성공개최는 물론 전남의 체육저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회장과 일문일담.
 -민선 2기 도체육회 운영 방안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의 공통공약은 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였다. 체육회가 자치단체 의존에서 탈피해 자주적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려면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17개 시·도체육회장과 협력을 바탕으로 체육회 예산지원을 규정한 체육진흥조례 개정엔 나설 계획이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체육진흥정책도 꼼꼼히 챙기겠다.
 -‘선거 갈등’ 치유 대책은 있나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오로지 전남 체육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를 지지한 체육인, 타 후보를 지지한 체육인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 것이다. 우선 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가운데 좋은 부분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를 내 공약과 함께 적극 추진해 전남 체육인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 미래 100

체육진흥조례 개정 재정 문제 해결
 체육인들과 미래 100년 새역사 열 것
 스포츠클럽종합체육대회 신설
 클럽 활성화의 동력 만들겠다
 대학·실업팀 창단 선수 유출 막기 앞장

년의 새역사를 써 나갈 계획이다.
 -시·군 스포츠 균형발전 정책은
 ▲시·군 체육회협의회장단 부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스포츠 교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도체육회 차원에서 시·군 종목간 교류 계기를 마련하고, 각 시·군체육회 임원, 직원, 지도자 간의 교류를 통해 스포츠 균형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각 종목별 교류대회도 시·군과 연계할 계획이다.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 생활체육 상생 방안은 클럽 활성화에 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전남도 스포츠클럽 종합체육대회를 신설하여 클럽 활성화를 동력을 만들 것이다.
 -도체육회 현안을 짚는다면
 ▲전남에서 키운 선수들이 고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대학,

실업팀을 창단해야 한다. 학교 운동부와 전남체육중·고등학교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지만 이들이 타 지역 대학이나 실업팀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자치단체장, 기관단체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회장에 대한 체육인들의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도 체육회 사무처가 안정돼야 대외적인 체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직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군체육회장, 종목 단체 회장과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이야말로 회장이 해야 할 일이다. 체육회장으로서 체육진흥의 사명을 부여 받았다. 이는 전남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
 -주요 실천 공약을 밝혀달라
 ▲내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종목 단체의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한 권역별 거점 사무실을 개설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체육 연계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실업팀 창단을 통한 지역 출신 국가대표급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기 중 남기고 싶은 유산은
 ▲전남은 전국체전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년째 10위 권 밖으로 밀려나 전남도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무너져 있다. 임기 동안 전남체육의 저력을 되찾고 싶다. 먹거리와 자연경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남을 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주형, 남자 골프 세계랭킹 15위

로리 매킬로이 1위·임성재 19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1274위

김주형(20)이 올해 마지막으로 발표된 주간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15위를 지켰다.
 27일(한국시간) 주간 세계랭킹에서 김주형은 지난주와 같은 15위를 차지했다. 다음번 주간 세계랭킹은 내년 2일 발표한다.
 김주형은 올해 첫 주간 세계랭킹에서 131위였지만, 1년 만에 세계랭킹 ‘20걸’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
 최근 결혼한 임성재(24)는 19위로 올해를 마쳤다. 임성재도 올해 시작은 26위였지만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경훈(31)은 38위, 김시우(27)는 82위로 내년을 기약했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1위를 지킨 가운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1274위에 그쳤다.
 랭킹 포인트를 얻지 못하는 LIV 골프에 합류한 주요 선수들의 세계랭킹은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72위로 올해를 시작한 LIV 골프의 선도자 필 미컬슨(미국)은 213위로 떨어졌다.
 LIV 골프의 간판선수 더스틴 존슨(미국)은 연초 15위에서 41위로 내려앉았다.
 루이 우스트히즈(남아공)는 21위에서 50위, 브라이슨 디샬보(미국)는 28위에서 67위로 하락했다.
 그나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1-2022 시즌을 모두 마치고 LIV 골프에 뛰어든 캐머런 스미스(호주)는 2위로 시작해 3위로 올해를 마쳤



김주형

다.
 다만 LIV 골프 합류가 늦었거나 DP 월드 투어나 아시아 투어 등 세계랭킹 포인트를 부여하는 대회에 자주 출전했던 제임스 파이어트, 체이스 캠퍼카(이상 미국), 아드리안 오테기(스페인) 등은 세계랭킹이 조금 올랐다.
 /연합뉴스

살라, EPL 리버풀 소속으로 ‘50득점-50도움’ 달성

‘이집트 왕자’ 무함마드 살라(30·사진)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리버풀 소속으로 통산 ‘50득점-50도움’을 달성했다.
 살라는 27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애스턴 빌라와 치른 2022-2023 EPL 1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1골 1도움을 올려 리버풀의 3-1 승리에 한몫했다.
 전반 5분 앤드루 로버트슨이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에서 찰려준 공을 문전으로 쇄도하며 왼발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터트린 살라는 1-0으로 앞선 전반 37분에는 버질 판데이크의 결승골을 도왔다.
 올 시즌 리그 7호골 및 4호 도움을 작성한 살라는 EPL 통산 공격포인트를 127골 51도움으로 늘렸다.
 특히 2017-2018시즌부터 리버풀에서 6시즌을 보내는 동안 125골 50도움을 기록했다.
 살라가 EPL에서 올린 나머지 공격포인트(2골 1도움)는 2013-2014시즌 첼시 소속 때 기록한 것이다.
 축구 통계 업체 옵타에 따르면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EPL 통산 득점과 도움 모두 50개 이상 기록



한 선수는 스티븐 제라드 전 애스턴 빌라(잉글랜드) 감독에 이어 살라가 두 번째다.
 ‘리버풀의 레전드’ 제라드 전 감독은 리버풀에서 EPL 통산 120골 92도움의 성적을 남겼다.
 이제 전설의 길을 살라가 따르고 있다.
 이날 살라의 선제골을 도운 로버트슨도 EPL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왼쪽 수비수 로버트슨은 EPL에서 올 시즌 5호이자 개인 통산 54번째 도움을 기록해 수비수 중에서 이 부문 역대 1위에 올라섰다.
 역시 왼쪽 풀백으로 위건 애슬레틱스, 에버턴에서 활약했던 레이턴 베인스를 넘어섰다.
 베인스는 EPL 420경기에서 53도움을 기록했다. 로버트슨은 231경기 만에 54도움을 올렸다.
 리버풀은 이날 승리로 리그 3연승을 거두며 승점 25(7승 4무 4패)를 쌓아 6위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오른쪽)이 26일(현지시간) 영국 브렌트퍼드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열린 2022-2023 EPL 17라운드 경기에서 상대팀의 마티아스 예센을 제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마스크 쓰고 EPL 복귀전 풀타임 뛰었다

공격 포인트 획득엔 실패

토트넘, 브렌트퍼드와 2-2 비겨

손흥민(30)이 얼굴 보호대를 쓰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복귀전을 치른 토트넘 홋스퍼가 브렌트퍼드와 무승부를 거뒀다.
 토트넘은 26일 영국 브렌트퍼드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퍼드와 2022-2023 EPL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은 10월 29일 본머스와의 14라운드 이후 처음으로 EPL 경기에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그는 지난달 2일 마르세유(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 도중 안와골절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이후 소속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채 회복에 집중하다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풀타임으로 4경기를 치렀다.
 월드컵을 마치고 토트넘으로 복귀한 뒤 22일 니

스(프랑스)와 친선전에서 16분을 뛰며 몸을 풀 손흥민은 이날도 얼굴을 보호하는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월드컵에서 만났던 마스크를 착용했던 그는, 이날 소속팀 경기에선 등번호인 숫자 ‘7’ 스티커를 붙인 마스크를 쓰고 뛰었다.
 해리 케인, 데얀 콜루세브스키와 전방에 나선 손흥민은 여러 차례 돌파를 시도했는데, 공격 포인트는 더하지 못했다.
 올 시즌 EPL에서 3골 2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9월 레스터시티전에서 유일하게 득점포를 가동, 헤트트릭을 달성한 바 있다.
 먼저 득점에 성공한 쪽은 브렌트퍼드였다.
 전반 15분 역습 과정에서 브라이언 음비모의 왼쪽 측면 크로스에 이은 마티아스 예센의 오른발 슛을 토트넘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가 제대로 건어내지 못하고, 이를 비탈리 야넬트가 달려들며 밀어 넣어 선제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전반 25분 손흥민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

1분 뒤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한 콜루세브스키의 왼발 슈팅과 전반 30분 에릭 다이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 야크 정면에서 찬 왼발 슛도 상대 골키퍼에게 모두 잡혔다.
 브렌트퍼드는 결국 후반 9분 토니의 추가 골로 2-0을 만들었다.
 그러나 두 골을 내준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만회해 나섰다. 후반 20분 클레망 랑글레의 크로스에 이어 케인의 헤딩이 골대를 맞고 나섰고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회심의 왼발 슛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월드컵 휴식이 이후 첫 경기에서 승점 1을 챙긴 토트넘은 4위(승점 30·9승 3무 4패)를 유지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승점 30·8승 6무 1패)에 골 득실에서 10-18로 밀렸다. 브렌트퍼드는 9위(승점 20·4승 8무 4패)에 자리했다.
 /연합뉴스